

알베르티의 건축 설계론과 비트루비우스*

Alberti's Theory of Architectural Design and Vitruvius

조은정(목포대학교 조교수)

- I. 서론
- II. 고전에 대한 도전
 - 1. 모무스(*Momus*)의 비판
 - 2. 『건축론(*De re aedificatoria*)』 vs 『건축론(*De architectura*)』
- III. 알베르티의 건축 설계론
- IV. 결론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의 『건축론(*De re aedificatoria*)』에서 다루어진 설계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사회의 예술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알베르티를 비롯하여 필라레테(Antonio Averlino 'Filarete', 1400-1469), 프란체스코 디 조르조 마르티니(Francesco di Giorgio Martini, 1439-1502) 등 15세기 이탈리아 건축가들의 이론서에 나타난 건축물의 디자인과 도시 계획 방법을 살펴보면 이들이 고전 고대의 전통을 재해석하는데 있어서 동시대 인문주의 이상에 따라서 용어와 개념, 설계 방식을 새롭게 구축했음을 알게 된다. 특히 이들은 르네상스 건축과 회화 이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저서 *De architectura*에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개인적 취향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건축의 패러다임을 제안했던 것이다.

알베르티의 건축 이론서 *De re aedificatoria*(1452)(도 1, 2)¹⁾는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목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참고한 알베르티의 건축론 영역본은 다음 두 가지이

회화 이론서인 *Della pittura*(1436)보다 십여 년 후에 완성된 것으로서 초기 저서인 회화론에서 소개되었던 그의 예술관과 방법론이 보다 완숙하고 체계화된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그의 건축 이론서는 비트루비우스의 저서와 그가 누렸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준다.²⁾ 알베르티는 1428년 자신의 가문에 내려졌던 추방령 해제 후 피렌체로 돌아온 직후 저술한 회화론에서 과거 파도바와 볼로냐에서 교육받았던 고전학과 수학에 대한 소양을 자신이 피렌체에서 체험했던 당시의 새로운 예술적 동향에 대한 학술적 체계화에 활용한 바 있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소위 *costruzione legittima*로 불리는 일점 소실점 체계의 선원근법을 화가들을 위한 실제적 기법으로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시대 화가들이 이미 체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투시도법을 고전 광학과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³⁾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알베르티의 주된 관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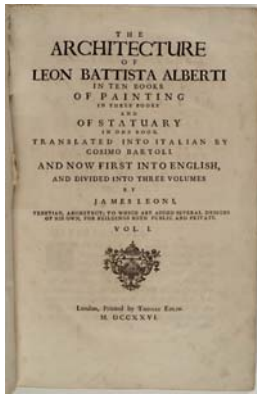


도 1. 알베르티의 건축론, 1755년 레오니 영역본 권두 삽화

다. Leon Battista Alberti, *De re aedificatoria*(1452): *The Architecture of Leon Battista Alberti in Ten Books, of Painting in Three Books, and of Statuary in One Book*, Italian trans. by Cosimo Bartoli, and English trans. by James Leoni(London: T. Edlin, 1726(1755년 재판)):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English trans. by Joseph Rykwert, Neil Leach, and Robert Tavernor(Cambridge, Mass.: MIT Press, 1988).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이론서에 미친 비트루비우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Alina A. Payne, *The Architectural Treatise in the Italian Renaissance: Architectural Invention, Ornament, and Literary Cultur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 2) 알베르티의 『건축론』은 인쇄본으로 출판되기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어 본으로 번역되었으며, 피렌체 출판업자 알라마니(Niccolo di Lorenzo Alamani)가 1486년 라틴어 인쇄본을 출판한 이후 1512년과 1541년에 각각 파리와 스트라스부르에서 새로운 라틴어 본이 출판되었다. 앞서 저술된 회화론이 1540년에 와서야 인쇄본으로 출판된 것을 고려한다면 알베르티의 『건축론』이 동시대와 후대인들에게 더 비중 있게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 3) 바사리는 알베르티가 1457년 자연적 원근법과 축소/확대 제도법 등을 발명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알베르티가 회화론에서 일점 투시도법에 대해 다룬 것이 1435년으로, 그 당시에 이미 피렌체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점 투시도법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사리는 또한 같은 책에서 알베르티의 『건축론』이 1481년도에 출판되었다고 잘못 기술하고 있다. G. Vasari, *Le vite de' più eccellenti pittori scultori ed architettori*, 1550, rev. ed. 1568/ ed. G. Milanesi, 9 vols(Florence, 1906); 바사리 저, 이근배 역,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 전』(탐구당, 1995), pp.406-408 참조.



도 2. 알베르티의 건축론, 1726년 레오니 영역본 속표지

고대의 부활이 아니라 동시대 사회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개선책이었으며 고전학은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도구였다. 동시대 피렌체 미술과 건축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이미 『회화론』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1436년 브루넬레스키에게 헌정한 이탈리아 본 서문에서 다시 돌아온 조국 피렌체의 예술이 고대 예술에 비해 뒤지지 않으며 특히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돔 지붕은 고대인들에게도 불가능하게 여겨졌을 것이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었다.⁴⁾

이처럼 동시대 피렌체 예술의 새로운 경향에 대한 그의 평가는 고대 예술을 능가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설명하는 서술 방식과 용어의 사용은 철저하게 고전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알베르티는 동시대 사회에서 건축을 학문으로서 정립시키기 위해서 고전학으로부터 많은 개념을 빌어 왔다. 『회화론』을 번역한 스펜서(J. Spencer)는 알베르티가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인문학자가 추구해야 하는 ‘영광과 덕목’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용한 *virtù*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그가 문체나 용어에 있어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106-43)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기술한 바 있다.⁵⁾ 스펜서의 지적대로 알베르티는 *virtù*를 고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바와 같이 ‘바람직한 행위’와 ‘좋은 능력’을 포괄하는 고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베르티는 『건축론』에서도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건축가에게 특히 요구되는 요소로서 *virtus*를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건축이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⁶⁾ 이처럼 건축의 공익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비트루비우스가 자신의

4) Leon Battista Alberti, *De pictura*(1435)/*Della pittura*(1436); Leon Battista Alberti on Painting, English trans. by J. Spencer(Yale University Press, 1956). p.40.

5) ‘ogni laude di qual si sia virtù’; *Leon Battista Alberti on Painting*, English trans. by J. Spencer(1956), p.99, n.4; 레오니는 1550년 바르톨리(Cosimo Bartoli)의 이탈리아어 본을 토대로 한 1726년 영역본에서 ‘virtù’를 ‘value’로 번역한 바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virtue’보다는 레오니의 ‘value’가 알베르티의 원 개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The Architecture of Leon Battista Alberti in Ten Books, of Painting in Three Books, and of Statuary in One Book*, Italian trans. by Cosimo Bartoli, and English trans. by James Leoni(1726) 참조.

6) *De re aedificatoria* 제1권 6장; *Leon Battista Alberti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trans, by J. Rykwert et al(1988), p.426 참조.

저서에서 건축가에게 필요한 교육을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철학적 소양을 강조했던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건축가는 고결함을 유지해야 하며 허영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중하되 탐욕스럽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건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한 수입이나 특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품위 있게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철학적 소양에 포함된다. (...) 또한 철학에서는 물리법칙(φυσιολογία)을 다루고 있어서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⁷⁾

II. 고전에 대한 도전

1. 모무스(Momus)의 비판

알베르티의 건축 이론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비교 대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이다. 비트루비우스는 15세기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사들에 있어서 토대가 되었으며, 알베르티의 『건축론』은 이 고대 건축가의 이론서에 대한 첫 번째의 현대화 시도라고 할 수 있다.⁸⁾ 포지오 브라치올리니(Poggio Bracciolini, 1380-1459)가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 당시 성 갈렌 수도원을 비롯한 여러 수도원을 뒤져서 고전 문헌들을 발견하고 그 사본을 이탈리아로 가져온 것을 계기로 해서 15세기 이탈리아 사회에 비트루비우스가 ‘재발견’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보카치오와 페트라르카 등

7) Vitruvius, *De architectura* 제 1권 1장 7절. 본 논문에서 주로 참고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은 모건(M. H. Morgan)의 영역본이다.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English trans. by Morris Hicky Morgan(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London: Humphrey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4).

8) 비트루비우스의 저서에 대한 번역본과 주해서는 15세기 말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출판되었다. 베로네제 출신의 학자 술피티우스(Fra Giovanni Sulpitiuss)가 1486년에 초판을 내었으며 1511년에는 지오콘도(Fra Giovanni Giocondo)가 베네치아에서 삽화와 함께 출판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번역본으로 유명한 것은 체사리아노(Cesare Cesariano)의 1521년 판본이다. 이후 16세기 동안 유럽 전역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14세기 인문학자들 역시 이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을 참고하고 자신의 저서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⁹⁾ 그러나 15세기 초에 들어와서 고전문헌들에 대한 관심이 광범위하게 일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브라치올리니가 자신이 발견한 고대 저자들의 문헌에 대해서 동료 학자들과 논의한 편지¹⁰⁾에서도 15세기 초 이탈리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Marcus Fabius Quintilianus, 35-100) 등 당시에 완전한 형태로 재발견된 고대 저자들의 작품에 대한 번역과 해석 작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알베르티가 본격적으로 『건축론』을 집필하기 시작한 시기는 피렌체 공의회 후 1443년 교황을 따라서 로마로 돌아온 후였다. 당시 그의 관심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또 다른 자료는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풍자소설 『모무스(Momus)』¹¹⁾이다. 이 작품은 고대 시인 루키아누스(Lucianus, 125-180)의 『신들의 대화』와 『사자들의 대화』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5세기 초반 이탈리아 사회의 정치와 예술 현장을 다루고 있다. 풍자와 비판의 신 모무스가 올림포스에서 추방당한 후 지상을 떠돌며 인간과 신들 사이에서 좌충우돌 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을 다룬 이 소설에서 알베르티는 모무스의 입을 빌려서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찬사가 신들과 군주에게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비판

9) Hanno-Walter Kruft, "The Vitruvian Tradition and Architectural Theory in the Middle Ages,"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from Vitruvius to the Present*(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2), pp.30-40.

10) 브라치올리니와 교신한 대표적 인물로 프란체스코 바르바로(Francesco Barbaro, 1390-1454)를 들 수 있다. Vespasiano da Bisticci, *The Vespasiano Memoirs: Lives of Illustrious Men of the XVth Century*, trans. by W. George and E. Waters(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pp.352-353; W. Shepherd, *The Life of Poggio Bracciolini*(Liverpool, 1837), pp.86-106 등 참조.

11) *Leonis Baptistae Alberti Florentini Momus*. - Romae: Ex Aedib. Iacobi Maz[ochii]. Ro[manae]. Academiae Bibliopol[ae]., 1520; *Momus*는 1520년 마조키(Giacomo Mazzocchi)에 의해서 출판되기 전까지 필사본 형태로만 유통되었다. 'De principe(군주에 대하여)'라는 부제를 알베르티 본인이 붙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초기 필사본에 "알베르티 가문의 바티스타가 저술한 모무스라고 불리는 군주에 대한 책"이라는 메모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는 *Leon Battista Alberti: Momus*, English trans. by Sarah Knight, Latin text edit. by Virginia Brown & Sarah Knight(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xxiv, n.1 참조.

했던 것이다. 작품에 묘사된 올림포스와 인간 세계의 혼란상이나 신들과 인간들의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들은 15세기 이탈리아 사회의 궁정과 시민 사회의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건축에 대해 알베르티가 가지고 있던 관심과 취향이 드러나는데 이는 뒤이어 저술된 건축론에서 구체화된다. 알베르티는 1424년 볼로냐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할 당시 라틴어로 희극 『필로독세오스(Philodoxeos)』를 저술하면서 Lepidus라는 가상의 고대 로마 저자의 작품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호도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일화는 그가 고대의 저자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경쟁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모무스』와 『건축론』에서 알베르티는 고전 작품들의 형식과 개념을 동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더욱 구체화했다. 루키아누스와 비트루비우스의 저술로부터 주제와 형식을 빌려오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동시대 이탈리아 사회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모무스』는 나중에 건축론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알베르티의 정치관과 건축에 대한 취향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작품이다. 유피테르가 자신이 만들어낸 지상 세계의 혼란상에 실망하여 이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인간 세상이 존속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시킨 것은 철학자들을 비롯한 현자들의 사고가 아니라 옛 건축가들의 웅장한 건축물이었다.

“그(헤라클루스)는 가장 현명한 신들조차도 유피테르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상을 새롭게 고치는 작업이 여럿을 기쁘게 하길 바랄 수도 있겠고,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고친다고 해도 비천한 이들의 박수밖에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가 개의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늘 있게 마련이다. 먼저 영예로운 신들 중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더 선호하는 존재들이 항상 있다. 게다가 현존하는 세상을 이토록 놀라운 기술로 지어낸 훌륭한 옛 건축가들은 이미 늙어서 사라졌다. 헤라클루스는 아무리 천재적인 장인들이라도 현재와 같이 안정되게 만들어져서 이처럼 광대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들보다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만약에 유피테르가 새로운 건축가들을 선호한다면, 이들이 유노의 홍예문 건축에서 보여준 수준을 떠올려야 할 것인데, 이 홍예문이 건설 도중에 무너진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¹²⁾



도 3. 알베르티의 흉예문 설계안에 대한 1755년 레오니 영역본 삽화

위에 인용한 문단에서 언급된 유노의 흉예문은 천상 세계의 입구에 세운 조형물이었다. 유노는 유피테르에게 자신의 거처가 누추하다고 탄식하면서 새로 거처를 꾸밀 수 있도록 신들에게 봉헌된 황금을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유피테르가 마지못해서 이를 허락하자 스스로 거대하고 화려한 색채의 개선문을 세웠으나 건설 도중에 무너져서 ‘청동으로 된’ 천상의 돔 지붕이 진동할 정도였다는 것이다.¹³⁾ 나이트(S. Knight)와 그래프턴(A. Grafton) 등은 알베르티가 유노의 아치 붕괴 사건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교황 니콜라스 5세가 1447-48년에 시작한 교황 궁전 입구의 대규모 성곽 건축 사업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⁴⁾ 이 건축물은 실제로 1454년 건설 도중에 무너져서 다시 지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초기 공사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알베르티로서는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알베르티가 공공 건축물의 장식을 주제로 다룬 『건축론』 8권에서 도시 광장 입구의 흉예문에 대한 비례와 도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내용(도 3)¹⁵⁾을 떠올린다면 『모무스』에서 드러난 동시대 건축에 대한 관심이 뒤이어 저술된 건축론에서 체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노 여신이 황금 봉헌물을 요구했을 때 유피테르가 토로한 다음과 같은 탄식은 알베르티 자신이 『회화론』 제 2권 마지막에서 동시대 화가들에게 경고한 바를 떠올리게 한다: “당신(유노)은 건물을 꾸미기 위해서 황금 봉헌물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의 거처가 충분치 않다는 것인가? 새로운 아치를 세워야만 한단 말인가?”¹⁶⁾ 『회화론』에서 알베르티가 동시대 화가들에게 황금의 남용에 대해서 경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2) *Momus* 제 3권 69장.

13) *Momus* 제 2권 100장.

14) *Leon Battista Alberti: Momus*, English trans. by Sarah Knight; Latin text edit. by Virginia Brown & Sarah Knight(2003), p.389, n.21; Anthony Grafton, *Leon Battista Alberti: Master Builder of the Italian Renaissance*(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309 참조.

15) 레오니의 도판은 바르톨리의 1550년 이탈리아 번역본의 목판화 삽화를 동판화로 옮긴 것임. Leon Battista Alberti, *The Architecture of Leon Battista Alberti in Ten Books, of Painting in Three Books, and of Statuary in one Book*. English trans. by James Leoni(1755), 제 8권, p.64.

16) *Momus* 제 2권 31장.

“화가들 중에는 *istoria*에 너무 많은 황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작품의 위엄을 높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 황금의 광채를 색으로 표현하는 화가들이 더 훌륭하다.”¹⁷⁾ 그의 이러한 경고는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던 중세 템페라화의 전통적 표현 기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유노의 홍예문 역시 건축 구조와 공법에 대한 몰이해와 이기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인 동시에 알베르티가 비판의 신 모무스를 통해서 냉소적으로 공격했던 동시대 사회 지도층 인사와 일반 시민들의 구태의연하고 사치스러운 취향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과 정치에 알베르티에게 있어서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주제였다. 그리고 이 주제는 뒤이어 완성된 『건축론』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동시대인들에게 자신이 ‘고대 건축을 분석함으로써 발견한’ 해결책을 제안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건축의 디자인과 공법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저변에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합리적 관계 모색을 주장하는 정치적 입장이 깔려 있다. 『모무스』와 『건축론』을 관통하는 알베르티의 핵심적인 주장은 군주와 시민 모두가 공덕심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후자에서 시민 생활의 공동 무대로서 도시 전체의 설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개별 건축물과 세부 항목들이 이 전체 구성에 맞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⁸⁾ 또한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저택과 일반 시민들의 주택이 서로 시기와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전체 도시계획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강조하면서 대신 도시 관문과 주요 도로, 극장, 신전, 광장 등 공공 건축물은 도시 전체의 위엄을 살릴 수 있도록 장려하게 지을 것을 권했다.¹⁹⁾ 이러한 내용은 『모무스』 마지막 부분에서 유피테르에게 모무스가 남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상기시킨다.: “그(군주)는 근면, 조심성, 열의, 검소, 절조의 신들이 좋은 것들로 주머니를 가득 채워 와서 도시의 교차로와 관문, 극장, 신전, 광장과 기타 공공장소들에 쏟아 놓고 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도록 명해야 한다.”²⁰⁾

17) *Della pittura* 제 2권 25장; *Leon Battista Alberti on Painting*, English trans. by J. Spencer(1956), p.85.

18) *De re aedificatoria* 제 8권 6장.

19) *De re aedificatoria* 제 9권 1장.

20) *Momus* 제 4권 102장.

2. 『건축론(*De re aedificatoria*)』 vs 『건축론(*De architectura*)』

뒤이어 저술된 *De re aedificatoria*는 『모무스』와 마찬가지로 알베르티가 고대 저자의 작품으로부터 형식을 빌려와서 동시대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책의 제목과 구성은 알베르티가 처음부터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서 *De architectura*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개선책, 혹은 대항마로서 자신의 저서를 기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비트루비우스와 동일하게 저서의 내용을 10권으로 나누면서도 각 권의 내용에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실제적인 사례 분석에 이르기까지 체계화와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고대 건축서와 차이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알베르티가 자신의 저서에서 비트루비우스의 이름을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가 이 고대 건축가에 대해서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건물의 바닥 포장에 대해 기술하면서 플리니우스와 비트루비우스가 기술한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고대 건축물들을 고찰해서 얻은 지식이 이들 고대 저자들의 책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또한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기』에서 묘사했던 목조 교각 건설 방식을 상세하게 소개한 후에 당대에 세워진 베로나의 목조 교각에서 수레들이 지나다니는 부분에 철근으로 받판을 놓았던 사실을 비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알베르티는 고대 건축의 사례를 참고로 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 모색을 항상 강조했다.²¹⁾

알베르티에게 있어서 비트루비우스는 ‘본받을 만한’ 고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트루비우스의 저술 능력이 훌륭하지 못하다는데 있었다. 알베르티의 비판적 시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건축물의 장식에 대한 제 6권 첫 부분이다. 건축술이라고 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설명하면서 고대 저자들의 문헌들이 세월에 의해서 사라지고 자신의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비트루비우스의 저서이지만 생략되거나 단축된 내용이 많아서 거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트루비우스의 글 자체가 두서없어서 자신과 동시대인들은 남아있는 고대 신전과 극장 건물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알베르티는 비트루비우스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21) *De re aedificatoria* 제 3권 16장, 제 4권 6장.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채로 뒤섞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가 그리스인인 척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리스인들은 그가 황설수설하는 로마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꼬았다.²²⁾ 이러한 기술은 알베르티가 고전학자의 입장에서 비트루비우스의 문체와 용어 구사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음을 알게해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알베르티는 저서 곳곳에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이론서에 기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서, 그가 실제적으로는 이 고대 건축가의 이론을 자신의 건축 이론과 기법에 대한 토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건축 자재를 다룬 제 2권에서 모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²³⁾ 그는 모래에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갠과 강, 바다라고 하는 출처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상급은 갠에서 나는 모래로서 다양한 색깔과 입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래가 산 속에서 화재로 구워진 흙의 일종으로서 굵지 않은 진흙(벽돌)보다 딱딱하지 않고 투파(석회화)보다 무르지 않다고 한 비트루비우스의 설명과 함께 이와 대비되는 자신의 견해, 즉 보다 큰 돌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들로 구성된 물질이 모래라는 설명을 제시했던 것이다. 알베르티의 이러한 서술 방식은 비트루비우스를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 그가 인용한 비트루비우스의 설명은 토스카나 지역에서 나는 특정한 종류의 모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서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모래에 대한 설명은 알베르티 본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²⁴⁾ 무엇보다도 *De re aedificatoria* 제 1권에서 밝히고 있는 *lineamenta*의 개념과 중요성은 비트루비우스가 건축술의 모든 원칙을 밝히겠다고 했던 *De architectura* 제 1권 2장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알베르티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건축술의 성격과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건물은 몸의 형태와 같아서 마음과 정신의 소산인 *lineamenta*(용모, 형태)와 자연의 소산인 *materia*(물질,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는 정신과 이성을 필요로 하며 후자는 준비와

22) *De re aedificatoria* 제 6권 1장.

23) *De re aedificatoria* 제 2권 12장의 내용과 *Vitruvius* 제 2권 6장 6절의 내용을 비교할 것.

24) *Vitruvius* 제 2권 4장 2-3절: 알베르티와 마찬가지로 비트루비우스도 갠에서 나는 모래와 강, 바다에서 나는 모래의 성질을 비교하면서 콘크리트와 스투코, 석조 작업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선택에 좌우된다. 그러나 *lineamenta*에 맞춰서 *materia*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장인의 솜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건설 공법과 건물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한다. 또한 건물들은 다양한 용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용도에 맞는 *lineamenta*의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건물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에 공유되는 미의 본성과 함께 각 건물들에 적합한 형태를 고찰하고, 특정 사례들에 있어서 관찰되는 결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그는 먼저 *lineamenta*와 *materia*,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한 후에 도시 계획과 개별 건축물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개진했다.²⁵⁾

이처럼 그는 서문에서 수많은 다양한 예술 분야들 가운데 건축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자신의 건축서 목차와 제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제 1권은 건물의 형태 구성에 대한 것으로, 개별 건축물의 구조와 건물을 세우기에 적절한 지리적 조건을 함께 다루고 있다. 제 2권은 실제 건축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건축 작업과 비용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 3권은 건설 작업에 대한 것으로서 모든 건축 공법이 재료를 기술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치하는데 달려있음을 주지시킨 후에 지지대 이음매, 궁륭과 아치, 지붕의 유형 등 구조에 대한 항목까지 포괄적으로 기술한다.

앞선 세 권이 건축에 대한 일반론을 다룬 것이라면 뒤이은 여섯 권에서는 각각의 용도에 따른 도시와 개별 건축물들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과 제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제 4권에서는 사회 전체를 위한 건축물과 상류층 시민들을 위한 건축물, 일반인들을 위한 건축물을 구분한 후에 도시 전체와 공공복지를 위한 건축술을 개진하는데 특히 도시와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시 구조와 방어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 제 5권은 개인들을 위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 관계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상류계급과 하류계급, 고용주와 하인, 가장과 안주인 등 사회 구성원 개개인 사이의 관계가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건축물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 6권 1장에서 모든 형태의 건축에서 중요한 세 가지 조건으로 기능성과 견고함, 아름다운 외관을

25) *De re aedificatoria* 서문 참조. 서문에서 알베르티가 설명한 책의 구성 가운데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Leon Battista Alberti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trans. by J. Rykwert et al(1988), p.367, n.17을 참조.

들면서 기능성과 견고함을 충족시키는 요소가 *lineamenta*와 *materia*라면 아름다운 외관을 충족시키는 요소는 *ornamenta*(장식, 디자인)라고 지적하고, 뒤이어 종교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 개인 주거 건축물의 *ornamenta*를 사례 별로 분석한다. 마지막 제 10권은 건축물의 결점을 교정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알베르티가 제 4권에서 의미하는 공공 건축이 도시 전체의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신전과 성소, 바실리카, 공공 여흥을 위한 건축물(Spectaculum), 성직자와 관리 등 특정 집단을 위한 개별 건축물들”은 공공 건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⁶⁾ 그는 대신에 도시의 외곽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산이나 평야와 같은 지형을 도시 거주민들의 생활에 맞도록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문과 도로, 다리와 하수 시설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비트루비우스 역시 자신의 저서 제 1권에서 건축가의 소양, 건축의 구성 원리 등과 함께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알베르티는 도시 계획을 독립된 내용으로 취급하여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알베르티의 『건축론』이 16세기 이후 저술된 대부분의 건축 이론서들과 달리 건축 디자인과 설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시민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저변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Ⅲ. 알베르티의 건축 설계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베르티에게 있어서 *lineamenta*는 건물의 구조와 아름다움, 도시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기본 개념이다. 그는 이를 통해서 건축물을 기능에 맞도록 하는 동시에 아름답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단순히 외형,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과 설계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코지모 바르톨리(Cosimo Bartoli, c.1530-1572)의 1550년 이탈리아어 번역본과 함께 출판된 1726년 지아코모 레오니(Giacomo(James) Leoni, 1686-1746) 영어 판본을 보면 *lineamenta*가 각각 이탈리아어 *disegni*와 영어

26) *De re aedificatoria* 제 4권 8장: 신전, 성소, 바실리카, 공공 여흥을 위한 건축물을 구분하는 이러한 방식은 동시대 이탈리아 사회보다는 고대 로마 사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도 4. 알베르티의 건축론 제 1권 1장 첫 페이지(1550년 바르톨리 이탈리아어 본과 합본된 1726년 레오니 영역본)

design으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레오니는 건축론 제1권의 제목 역시 바르톨리를 따라서 *Of Designs; their Value and Rules*로 붙였다.(도 4)²⁷⁾ 이에 비해서 리퀴트(J. Rykwert)의 1988년 영어 번역본은 제 1권의 제목을 *The lineaments*로 직역했는데 이는 lineament가 design과 구별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⁸⁾ 리퀴트는 과거 이 용어의 번역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논의를 언급하면서 특히 *lineamenta*를 “계산된 평면도(measured ground-plan)”로 규정한

랭(S.Lang)의 견해에 대해서 반박한 바 있다. 알베르티가 책의 다른 부분들에서 윤곽선(outline), 특히 계산된 윤곽선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finitio*를, 그리고 우아한 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concinnitas*를 사용하는데 반해서 *lineamenta*는 ‘선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전체를 가리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⁹⁾

*lineamenta*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알베르티 자신이 기술한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개념이 ‘인간 정신의 산물’로서 ‘건축가의 정신과 이성’을 요한다고 했기 때문이다.³⁰⁾ 제 1권에서 알베르티는 *lineamenta*를 통해서 건축물의 적절한 장소와 수치, 규모, 건물 전체와 각 부분들을 아우르는 우아한 규범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건물의 전체 형태와 인상이 이에 좌우된다고 기술했다. 이는 비트루비우스가 건축론 제 1권 2장에서 다룬 건축의 기본 구성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미적 규범을 실제 건축 작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알베르티는 이 고대 로마 건축가와 구별되는 전개 방식을 보여준다. 해당

27) *De re aedificatoria* 제 1권 1장: *The Architecture of Leon Battista Alberti in Ten Books, of Painting in Three Books, and of Statuary in One Book*, Italian trans. by Cosimo Bartoli, and English trans. by James Leoni(1726), p.1.

28) 알베르티의 ‘lineamenta’를 레오니는 ‘design’, Rykwert는 ‘lineaments’로 번역했으며, ‘forma’를 레오니는 ‘shape’로, Rykwert는 ‘design’으로 번역하고 있다.

29) *Leon Battista Alberti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trans. by J. Rykwert et al(1988), pp.422-4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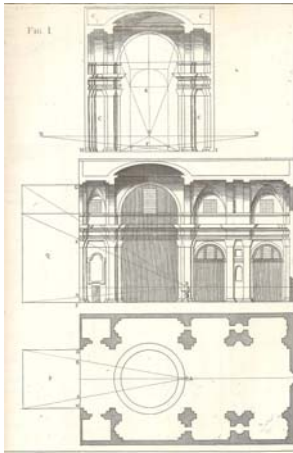
30) *De re aedificatoria* 서문: *Leon Battista Alberti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trans. by J. Rykwert et al(1988), p.5.

장은 *De architectura*의 내용 중에서도 비트루비우스가 그리스 건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어를 직접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로마 건축가의 기술이 가장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³¹⁾

비트루비우스가 건축의 구성 원리로서 ‘배치(*dispositio/διάθεσις*)’를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치란 각 사물을 적절한 위치에 두도록 하는 것으로서, 건축 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조절될 때 우아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시각화하는 방식(*ἵεαι*)은 이크노그래피아(*ichnographia*), 오르토그래피아(*orthographia*), 스케노그래피아(*scaenographia*)이다.” 뒤이어 비트루비우스는 이 세 가지 형태(*ἵεα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알베르티가 비판한 바와 같이 기술 방식이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에 후대에 여러 해석을 낳게 되었다.: “이크노그래피아는 컴퍼스와 자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건축물의 평면을 위한 윤곽선을 그리는 것이다. 오르토그래피아는 건축물의 전면 모습으로, 계산된 작업에 따른 비례에 맞춰서 세우는 것이다. 스케노그래피아는 안으로 들어가는 옆면과 함께하는 전면으로 모든 선들이 원의 중심에서 만나게 된다.”³²⁾ 모건(M. H. Morgan)은

31) “Architectura autem constat ex ordinatione, quae graece τάξις dicitur, et ex dispositione, hanc autem Graeci διαθεοιν vocitant, et eurythmia et symmetria et decore et distributione, quae graece οίκονομία dicitur.”(*Vitruvius* 제 1권 2장 1절) 해당 문장의 개념들에 대해서 번역본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어본에서 귄트(Gwilt)는 ‘ordinatio/τάξις’를 ‘fitness’로 번역한데 반해서 모건은 ‘Order’로 번역했으며, ‘eurythmia’, ‘symmetria’, ‘decor’에 대해서도 Gwilt는 각각 ‘proportion’, ‘uniformity’, ‘consistency’로, Morgan은 ‘Eurythmy’, ‘Symmetry’, ‘Propriety’로 번역했다. ‘dispositio/διάθεσις’와 ‘distributio/ οίκονομία’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arrangement’와 ‘economy’로 번역했다. *The Architecture of Marcus Vitruvius Pollio*, trans. by Joseph Gwilt(London: Priestley and Weale, 1826);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trans. by Morris Hicky Morgan(1914) 참조.

32) “Dispositio autem est rerum apta conlocatio elegansque e compositionibus effectus operis cum qualitate. species dispositioniis, quae graece dicuntur ἵεαι, sunt hae, ichnographia orthographia scaenographia. ichnographia est circini regulaeque modice continens usus, e qua capiuntur formarum in solis arearum descriptiones. orthographia autem est erecta frontis imago modiceque picta rationibus operis futuri figura. item scaenographia



도 5. 포초의 평면도(A), 길이에 따른 입면도(B), 폭에 따른 입면도(C)

이들을 각각 평면도(groundplan)와 입면도(elevation), 선 원근법에 따른 투시도(perspective)로 번역했으며 현재는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번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와 17세기 동안 출판된 건축 이론서들을 보면 르네상스 이후 건축가들이 비트루비우스가 설명한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를리오(Sebastiano Serlio, 1475 - 1554)는 자신의 건축서에서 비트루비우스의 용어를 빌려서 *icnografia*, *ortografia*, *sciografia*의 세 가지 제도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평면도와 외부 입면도(파사드), 내부 입면도(단면도)의 세 가지 도판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세를리오는 건물 설계 단계에서는 평면도로부터 입면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축법과 원근법은 건축 요소들의 치수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던 것이다.³³⁾ 이와 유사한 수정 사례는 포초(Andrea Pozzo, 1642-1709)에게서도 발견되는데, 그 역시 평면도(geometrical plan)와 길이에 따른 입면도(upright, lengthwise elevation), 폭에 따른 입면도(breadthwise elevation) 세 가지 방식을 건축물의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시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해서 선 원근법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도 5)³⁴⁾

즉 비트루비우스와 달리 근대 건축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투시도법은 단면도나 입면도와 같은 건축 설계 상의 기본 제도 방법보다는 환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장식의 한 수단, 혹은 규모의 확대와 축소를 위한 계산 방법으로서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알베르티 역시 건축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비트루비우스의 개념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적인 건축 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est frontis et laterum abscedentium ad circinique centrum omnium linearum responsus.”(Vitruvius Pollio, *De architectura*, edit. by F. Krohn(Leipzig, 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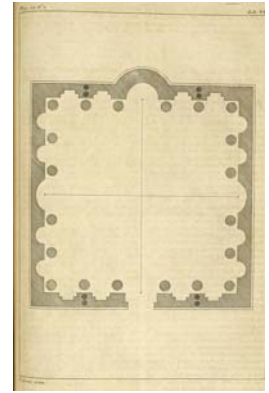
33) Sebastiano Serlio, *Tutte l'opere d'architettura et prospetiva: Sebastiano Serlio on Architecture*, vol.1, edit. by Vaughan Hart and Peter Hicks(Yale University, 1996), pp.100, 103.

34) 1693년 라틴어본과 합본된 1707년 존 제임스(John James) 영어본 도판: Andrea Pozzo, *"Perspectiva pictorum et architectorum," Perspective in Architecture and Painting: an Unabridged Reprint of the English-and-Latin Edition of the 1693* (London, 1707); Reprint(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9), pp.14-15, fig.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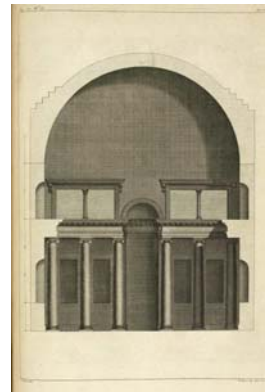
있다. 흥미로운 점은 16세기 이후 대부분의 르네상스 건축 이론서들에서 비트루비우스의 세 가지 건물 형태(이크노그라피아, 오르토그라피아, 스케노그라피아)들을 관련 도판들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알베르티는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면도나 투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에 '지면(area)'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 이 개념에는 도시와 건축물이 세워지는 '부지'로서의 평면과 건물의 '평면도'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제 1권에서는 건물을 세우는데 있어서 토대와 벽면, 지붕, 출입구 사이의 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뒤이은 권들에서는 유형 별로 건축물들의 평면 구조와 입면 구조 사이의 관계가 상호적임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고대 로마의 집회소 건물(Curia)을 설명하면서 궁륭 지붕일 경우 벽체의 높이는 건물 전면부 넓이보다 1/7 적어야 하고 문과 창문의 넓이와 길이 역시 건물 전체의 넓이와 길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 한 예이다.³⁵⁾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바르톨리의 1550년 이탈리아 번역본과 1755년 레오니의 영어 번역본에 첨부된 삽화(도 6, 7)³⁶⁾를 보면 근세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평면도와 입면도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알베르티가 이 도면 형식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뜻밖으로 여겨질 만하다.

이처럼 알베르티는 16세기 이후의 후대 건축가들과 달리 건축 설계 방식을 도면을 통한 시각적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묘사와 서술을 통해서 지시했다. 제 1권 12장에서 출입문의 크기와 형태가 전체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의 설계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높은 문의 경우는 높이가 넓이의 두 배, 낮은 문의 경우는 넓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과 높이가 같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구를 레오니 판본에 제시된 삽화(도 8)³⁷⁾와 비교해보면 알베르티가 자신의 개념을 도판의 도움



도 6. 알베르티의 고대 집회소에 대한 평면도; 1755년 레오니 영역본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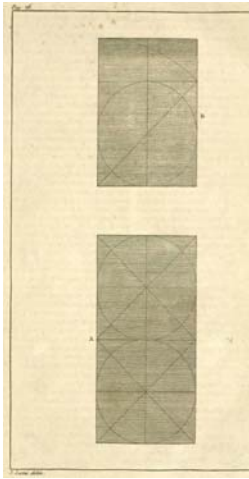


도 7. 알베르티의 고대 집회소에 대한 입면도; 1755년 레오니 영역본 삽화

35) *De re aedificatoria* 제 8권 9장; *Leon Battista Alberti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trans. by J. Rykwert et al(1988), pp.282-284.

36) *The Architecture of Leon Battista Alberti in Ten Books, of Painting in Three Books, and of Statuary in One Book*, English trans. by James Leoni(1755), 제 8권, p.72.

37) *The Architecture of Leon Battista Alberti in Ten Books, of Painting in Three Books, and of Statuary in One Book*, English



도 8. 알베르티의 출입구 설계 안에 대한 1755년 레오 니 영역본 삽화

없이도 얼마나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저술된 회화론에서도 기하학의 개념과 원리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서도 이를 예시하는 도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도판의 부재는 『건축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베르티의 전체 저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려한 문체와 전체 구성의 논리 체계를 중시하지만 도판과 삽화를 첨부해서 내용의 이해를 도울 필요성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알베르티에게 있어서 『건축론』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안내서가 아니라 건축가가 전체 사회 안에서 구현해야 하는 *virtus*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서였음을 알려 준다.

위에 인용된 건축 설계 방식에서도 관찰되는 바와 같이 알베르티는 건축술에서 수학과 기하학적 지식을 기본적인 도구로 활용했다. 그에게 있어서 수학과 기하학은 건축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베르티가 이 주제를 본문이 아니라 부록으로 다루었던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제 3권 2장에서 각도와 수치를 다루기 위해서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서 도판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수학 해설서 (*Commentarii rerum mathematicarum*)’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건축론 서문에서도 건축가들에게 필요한 산수와 기하학에 대해서 부록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으나, 문제의 수학 해설서나 건축론 부록 모두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알베르티가 건축가에게 필요한 도면 제작 방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작도법은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 설계의 핵심은 구성의 원리에 대한 인문주의적 고찰이었으며, 바로 이러한 의도야말로 16세기 이후의 ‘실용적’ 건축 이론서들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이다.

IV. 결론

알베르티가 『건축론』에서 피력했던 건축의 궁극적인 지향점, 즉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그의 저술

trans. by James Leoni(1755), 제 1권, p.16.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었다. 『회화론』과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가족론』에서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기술한 후에 각 가문이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했던 것이다. 그는 자녀 교육이나 결혼 배우자의 선택, 직업과 사회 활동 등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덕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국가와 법률이 설립되었음을 주지시켰다.³⁸⁾

『건축론』은 알베르티가 초기부터 견지하고 있던 이러한 정치관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결과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표준 설계를 단위로 해서 도시 전체의 구조를 설계하고, 각 개인의 주거 건축은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기나 장식에 있어서 전체 도시 외관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또한 아테네 정치가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 기원전 384-322)가 옛 시대에는 신전과 같은 공공 건축물들은 장대하고 화려해서 현재 건축가들이 따라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인 반면에 개인 건축물들은 부유한 시민들과 일반 사람들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박하게 지어졌다고 찬양하면서 동시대 건축의 사치스러운 풍조를 개탄한 사실을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여 인용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³⁹⁾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강조하는 그의 입장은 로마 제국 시대보다 공화정 시대와 고전기 그리스의 건축을 더 높이 평가한 데서도 드러난다. 로마 제국이 팽창하고 사치스러운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면서 부유한 개인들이 이웃들에 대한 배려 없이 거대한 저택을 대로변에 세우게 된 사실을 비판적으로 지적했던 것이다.

이러한 알베르티의 관점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제시되었던 공화국의 이상을 피렌체와 같은 도시 국가에 재현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군주나 지도층 인사들, 일반 시민들 모두 공공의 이익을 지킴

38) Leon Battista Alberti, *Della famiglia*: E. Cochrane, J. Kirshner 편집, 『르네상스』, 김동호 역(신서원, 2003), 5장 「가족에 관하여」, pp.129-165.

39) Demosthenes, *Third Olympiad 25-26; De re aedificatoria IX.1*: Leon Battista Alberti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trans. by J. Rykwert et al(1988), p.291.

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도층 인사들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는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의 법률과 종교 활동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학식’과 ‘지혜’)과 함께 공공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도시 생활의 터전인 건축야말로 이러한 정치적 이상향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건축론』 서문에서 국가의 안정과 품위, 영예가 건축가에게 달려있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적인 도시 공화국 체제에서 통치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 또한 개개의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 사이의 공동 친화적 유대 관계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틀이 바로 건축이라고 보았던 알베르티의 저술은 15세기 초반 피렌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이탈리아 인문주의의 이상주의적 경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투고일: 2010.4.2 / 심사완료일: 2010.4.28 / 게재확정일: 2010.5.8

주제어(Keywords)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건축론(De re aedificatoria), 모무스(Momus), 비트루비우스(Vitruvius), *lineamenta*, 공공사업(public works), 도시국가(City-State)

참고문헌

- Alberti, Leon Battista. *De pictura(1435)/Della pittura(1436): Leon Battista Alberti on Painting*. English trans. by J. Spencer, Yale University Press, 1956.
- _____. *Momus: Leon Battista Alberti: Momus*. English trans. by Sarah Knight, Latin text edit. by Virginia Brown & Sarah Knight,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De re aedificatoria(1452): The Architecture of Leon Battista Alberti in Ten Books, of Painting in Three Books, and of Statuary in One Book*. Italian trans. by Cosimo Bartoli, and English trans. by James Leoni, London: T. Edlin, 1726(1755년 재판); *On the Art of Building in Ten Books*. English trans. by Joseph Rykwert, Neil Leach and Robert Tavernor, Cambridge, Mass.: MIT Press, 1988.
- _____. *Della Famiglia*. Edit. by Cochrane J. Kirshner: 『르네상스』, 김동호 역, 신서원, 2003.
- Da Bisticci, Vespasiano. *The Vespasiano Memoirs: Lives of Illustrious Men of the XVth Century*. Trans. by W. George and E. Water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 Grafton, Anthony. *Leon Battista Alberti: Master Builder of the Italian Renaissan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Kruft, Hanno-Walter.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from Vitruvius to the Presen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 Payne, Alina A. *The Architectural Treatise in the Italian Renaissance: Architectural Invention, Ornament, and Literary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Pozzo, Andrea. "Perspective pictorum et architectorum." *Perspective in Architecture and Painting: an Unabridged Reprint of the English-and-Latin Edition of the 1693*. London, 1970; Reprint in New York: Dover Publication, 1989.
- Shepherd, W. *The Life of Poggio Bracciolini*. Liverpool, 1837.
- Vasari, G. *Le vite de' più eccellenti pittori scultori ed architettori*. 1550, rev. ed. 1568/ed. G. Milanesi, 9 vols. Florence, 1906; 이근배 역,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전』, 탐구당, 1995.
- Vitruvius Pollio, Marcus. *De architectura: The Architecture of Marcus Vitruvius Pollio*. Trans. by Joseph Gwilt, London: Priestley and Weale, 1826; edit. by Friedrich Krohn, Leipzig, 1912;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Trans. by Morris Hicky Morg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nd London: Humphrey Mil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4.

Abstract

Alberti's Theory of Architectural Design and Vitruvius

Cho, Eunjung(Mokpo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lberti's *De re aedificatoria* is the earliest case in the history of Italian Renaissance architectural treatises dealing with recovery of antiquity through textual and archaeological pursuits. The key source of the Renaissance theoreticians was Vitruvius' *De architectura*. However, Alberti was keenly aware of inaccuracy and Hellenization of Latinity in this classical text, and tried to compensate them in his own treatise. Furthermore he claimed a reformed discipline of the architects as well as the patrons, and prescribed how future buildings and cities should be built, based on the proper authority of ancient architecture in proper and intelligible Latin.

Such an adaptation of classical usage in order to reestablish a modern norm preceded in his earlier work *Momus*, a satire on the contemporary Italian society of his own by following the model of Lucian. Alberti's suggestion of proper government in *Momus's* phrase was expanded in *De re aedificatoria*, for he consider the buildings are subject to the rules of morality and public interests. He proclaimed that the nature of beauty is the reasoned harmony of every part within a body, and architectural beauty also lies on the harmonized arrangement of all the elements within an individual building and of all individual buildings and facilities within a city. For the architects to execute this task, he formulated the concept of *lineamenta*, the form derived from the mind in order to prescribe the proper place, numbers, scale, and orders for whole building structure. It is the future oriented city-plans and building designs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the good of all the individual citizens who make up the City-State that Alberti pursued in his treatise.